

2025학년도 1학기 1차 <2학년 윤리와사상 쪽지평가예상문제>

2학년 반 번 성명 :

01. (이성적)존재란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. <11쪽>
02. (서사적) 존재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려면 자신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. <11쪽>
03. 인간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(도구적) 존재이다. <12쪽>
04. (윤리)사상은 “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삶인가?”라는 물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답이다. <15쪽>
05. (윤리) 사상은 “나는 어떤 존재인가?”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. <15쪽>
06. (사회) 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다. <17쪽>
07.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과 사회 체제나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및 그것의 구현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를 (사회) 사상이라고 한다. <17쪽>
08. (사회사상)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. <17쪽>
09. 유교에서는 인간을 위로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이어받고, 아래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 (중간자)적 존재로 이해하였다. <31쪽>
10. 유교에서는 (인)의 윤리를 제시하여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. <31쪽>
11. (도가)에서는 인간을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보며, 자연의 질서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. <32쪽>
12. 도가에서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(무위자연)의 삶을 강조하였다. <32쪽>
13. 동양의 (유기체적) 세계관이란 세계를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. <33쪽>
14. 고조선 건국 신화에는 한국 윤리 사상의 바탕이 되는 경천사상과 (천인합일) 의식이 드러나 있다. <34쪽>
15. 한국 고유의 (민간 신앙)은 점이나 굿을 통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샤머니즘이나 특정 자연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대표적이다. <34쪽>
16. 고조선 건국 신화에는 인간을 존중하고,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를 이롭게 하는 정신인 (홍익인간)의 정신이 담겨 있다. <34쪽>
17. (단군 신화)에는 하늘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(경천)사상이 담겨 있다. <34쪽>
18. 한국의 불교 윤리 사상은 다양한 교리를 종합하고 선종과 교종의 (조화)을/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. <35쪽>
19. (인)은/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, 사람을 사랑하는 것, 나아가 극기복례(克己復禮)를 의미한다. <39쪽>
20. 공자는 인(仁)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(효제)와/과 충서(忠恕)를 제시하였다. <40쪽>
21. 공자는 덕을 갖춘 통치자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(덕치)를 강조하였다. <40쪽>
22. 공자는 인을 갖추고 예를 실천하는 이상적 인간을 (군자)라고 불렀다. <40쪽>
23. 공자는 (인)을/를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효제(孝悌)를 제시하고, 특히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(충서)을/를 제시하였다. 또한 예(禮)의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형식화된 예를 회복하려면 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는 (극기복례)을/를 제시하였다. <40쪽>
24.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, 신하는 신하답고, 부모는 부모답고,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(정명) 사상을 주장하였다. <40쪽>
25. 성무선악설에서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교육과 같은 (후천적)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. <41쪽>
26. (맹자)은/는 인간은 누구나 ‘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’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선한 존재라고 보았다. <41쪽>
27. (고자)은/는 인간이 타고난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며, 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보았다. <41쪽>

28. 성선설(性善說)을 주장한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선한 네 가지 마음인 (사단)이/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, 성악설(性惡說)을 주장한(순자)은/는 생리적 욕구를 근거로 인간에게 이기심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였다. 한편 (성무선악)설을 주장한 고자는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며 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보았다. <41,42쪽>
29. (맹자)는 군주가 백성을 잔혹하게 다스린다면 혁명을 통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 <42쪽>
30. (순자)은/는 천인분이(天人分二)의 입장을 바탕으로 인간을 하늘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보았다. <42쪽>
31. 맹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(민본주의)을/를 주장하였다. <42쪽>
32. 성악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(변화)시켜야 한다고 본다. <43쪽>
33. 순자는 예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하는 (화성기위)를 주장하였다. <43쪽>
34. 성리학에서는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인 (이)와/과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인 (기)이/가 결합하여 우주 만물이 나타난다고 본다. <44쪽>
35. 주희는 '성(性)이 곧 이(理)이다. 라는 (성즉리설)을 주장하였다. 즉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'이(理)'라고 하였다. <44쪽>
35. 왕수인은 "얕은 행함의 시작이고, 행함은 얕의 완성이다."라는 (지행합일)을/를 제시하였다. <46쪽>
36. 주희는 인간의 본성 중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선 그 자체를 (본연지성)이라고 말하였다. <44쪽>
37. 왕수인은 '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. 또 마음 밖에는 어떤 사물도 없다.'는 (심즉리설)을 주장하였다. <46쪽>
38. (이황)은 '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'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단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. <50쪽>
39. (이귀기천)은 '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.'라는 의미로 이황이 주장하였다. <50쪽>
40. 이황은 (사단)은/는 이가 발하여 기가 이를 따른 것이요, (칠정)은/는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는 내용의 (이기호발설)을/를 정립하였다. <51쪽>
41. 이황은 사단은 이(理)가, 칠정은 기(氣)가 각각 발한 것이라는 (이기호발설)을 주장하였다. <51쪽>
42. 이황은 이를 함양하기 위한 수양법으로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인 (상성성)을 강조하였다. <51쪽>
43.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막론하고 모든 감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타면서 드러난다는 (기발이승일도설)을 주장하였다. <52쪽>
44. 이이는 이와 기는 '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'인 묘합의 관계라는 (이기지묘)를 제시하였다. <52쪽>
45. (이이)는 이(理)는 만물에 통하고 기(氣)는 형체에 국한된다는 (이통기국)을 주장하였다. <52쪽>
46. 이이는 민본과 위민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(무실)을/를 주장하였다. <53쪽>
47. 이이는 정치적·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개혁하여 새롭게 하는 (경장)을/를 강조하였다. <53쪽>
48.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(성기호설)을/를 주장하였다. <54쪽>
49.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를 일컬어 (영지)의 기호라고 한다. <54쪽>
50. (정약용)은/는 인의예지의 사덕이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실천을 통해 (후천적)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. <55쪽>
51. 정약용은 인간이 선이나 악 중에서 어느 쪽을 행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(자주지권)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. <55쪽>
52. (사단)와/과 (칠정)은/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감정을 의미한다. (사단)은/는 도덕 감정으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, 사덕인 인의예지를 구현할 수 있는 네 가지 단서이다. (칠정)은/는 일반 감정으로 선할 수도, 악할 수도 있다. 이는 인간의 감정 전체를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.